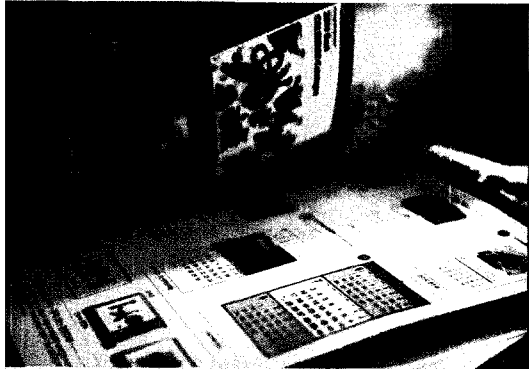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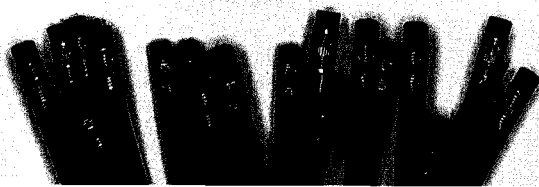


지령 100호 기념 광고주 대상 설문조사



광고내면 자사제품 매출에 큰 영향 **84%**

광고 낼 때 게재위치와 디자인 중요 **81%**



월간 프린팅코리아는 지령 100호를 맞이하여 광고주의 애로를 파악하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광고주 대상 설문조사를 지난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했다. 100호를 넘어서 보다 나은 200호, 300호로 나아가기 위해 광고주와 함께 호흡하는 프린팅코리아가 되고자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광고주들의 인쇄업계 매체에 대한 바람과 애로사항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홍보 관련자들의 개인적인 성향에 대해서도 파악해 볼 수 있는 설문조사가 되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작성자의 신상 질문 4개항, 회사 관련 질문 13개항, 개인 관련 질문 16개항으로 구성되었다. 광고주의 현황과 현재 진행 중인 광고에 대한 만족도 및 향후 광고집행 계획 등을 물었다. 개인적인 질문은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 기호생활, 명절에 소감을 묻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으며 총 응답자는 100명 이었다.



광고담당자는 30대, 대리급, 입사 3~5년차의 남직원 많아

인쇄업계 언론매체에 광고를 진행하는 광고주 기업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30대(46%), 대리(19%)나 과장(20%)으로 입사 3~5년차(28%)에 해당하는 남직원(62%)이었다. 그러나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여직원이 담당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38%)을 보였다. 회사 경영진이 직접 광고 관련 업무를 챙기는 경우도 적지 않아 대표가 직접 담당한다는 응답이 9%에 달했으며 임원이 담당한다는 4%와 합칠 경우 13%에 달했다. 이에 비해 20대가 담당한 경우는 17%에 그쳤으며 근무연수가 1년에 못 미치는 경우도 13%에 불과했다. 이는 광고 관련 업무는 회사에 대한 이해도와 업계의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해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보면 1년에서 10년에 해당하는 비율이 75%에 달했으며 직급별로는 사원(23%), 과장(20%), 대리(19%)가 62%를 차지했으며 부장(실장)급은 16%였다. 근무연수에 비해 사원 직급이 다소 많은 것은 여직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광고주 본사 서울 및 수도권에 80% 밀집... 90년대 설립된 기업 33%로 가장 많아

1. 귀사(본사)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 ① 서울 ② 수도권(서울 제외) ③ 충청권 ④ 전라권 ⑤ 경상권 ⑥ 강원도 ⑦ 제주도

서울(62%) 및 수도권(28%) 비중이 80%에 달했다. 비수도권지역은 1~4%의 낮은 비중을 보였는데 이는 본사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응답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쇄관련 매체들이 대부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집중된 것도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 직원은 몇 명입니까?

- ① 1~5명 ② 6명~10명 ③ 11명~20명 ④ 21명~30명 ⑤ 기타

광고주들의 직원 수는 30명을 넘어서는 기업이 32%에 달했으며 21~30명에 달하는 기업도 16%를 차지했다. 6~10명이라는 응답도 25%에 이르렀지만 절반에 가까운 48개 기업이 21명 이상의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어 광고주들의 규모가 큰 편임을 알 수 있었다. 5인 이하 기업은 7%에 그쳤다.

3. 귀사의 설립연도는 언제입니까?

90년대에 설립된 기업이 33%로 가장 많았다. 2000년 이후는 20%였으며 60년대 이전도 예상보다 많은 11%나 차지했다. 이는 글로벌기업의 한국법인인 경우에 해외본사를 기준으로 답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80년대에 설립된 기업(16%)에 비해 70년대에 설립된 기업이 절반 수준(8%)에 그칠 정도로 저조한 점은 흥미로웠다. 12%에 달하는 응답자들은 정확한 설립년도를 기억하지 못해 응답을 하지 않기도 했다.

4. 귀사가 주로 공급하는 제품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허용)

- ① 인쇄토탈출루션(인쇄기에서 후가공까지) ② 인쇄기 ③ 디지털인쇄기 ④ 인쇄후가공기
- ⑤ 인쇄용지 ⑥ 인쇄잉크 ⑦ 인쇄부자재 ⑧ 인쇄물 ⑨ 기타

상대적으로 무응답의 비율이 15%에 달할 정도로 높은 문항이었다. 인쇄토탈출루션(인쇄기에서 후가공까지)의 비중이 13%를 차지했으며 인쇄후가공기가 가장 높은 21%의 수치를 보였다. 인쇄물이라고 답한 응답도 17%에 달했으며 인쇄부자재도 14%를 차지했다. 디지털인쇄기를 취급하고 있다는 응답도 11%를 차지했으며 인쇄잉크는 4%에 그쳐 최소 응답률을 보였다. 기타라고 답한 광고주 가운데는 인증서비스 제공, 소프트웨어 판매 등이 눈길을 끌었다.

5. 올해 광고 게재건수는 작년과 비교해 어떻습니까?

- ① 줄었다 ② 비슷하다 ③ 늘었다 ④ 기타

2/3에 달하는 63%의 응답자가 전년과 비슷하다고 대답해 크게 나아지지 않은 인쇄업계의 경기를 대변해 주었다. 늘었다는 응답이 9%에 그친데 비해 줄었다는 응답은 14%에 달했다. 아예 광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과 무응답이 각각 5%, 9%에 달했는데 이는 일부 응답자들이 광고매체에 대한 인식을 달리 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6. 내년의 광고게재 계획은 어떻습니까?

- ① 늘릴 예정이다 ② 올해와 비슷하다 ③ 축소할 예정이다

내년 광고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 올해와 비슷하다는 응답이 79%의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늘릴 예정이라는 응답은 15%였으며 줄일 것이라는 응답이 2%에 그친 것은 지난해와 그 이전부터 광고 관련 예산을 줄이는 긴축경영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7. 광고를 게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 ① 판매 제품의 홍보 ② 회사의 이미지 전달 ③ 매체와의 협조차원 ④ 동종제품과의 경쟁 ⑤ 기타

광고를 게재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판매 제품의 홍보라고 답한 비율이 70%를 차지했다. 회사의 이미지 전달이라고 답한 응답도 18%에 달했으며 동종제품과의 경쟁과 매체와의 협조차원이라는 응답은 각각 6%, 2%에 불과했다. 기타라고 답한 응답 가운데 1번과 2번을 동시에 택해야 한다거나 모든 문항이 해당되는 이유라고 답한 응답도 일부 있었다.

8. 광고를 게재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광고 게재 위치 ② 광고디자인 ③ 인쇄상태 ④ 기타

광고 게재 위치라고 응답한 비율(43%)과 광고디자인(38%)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엇비슷했다. 인쇄상태라고 답한 비율은 9%에 불과했으나 인쇄상태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보다는 당연히 관리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느끼는 경향을 엿볼 수 있었다. 기타라고 답한 응답 가운데 서는 게재 위치나 디자인, 인쇄상태 모두가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눈길을 끌었다.

9. 광고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 ① 매우 영향을 미친다 ② 영향을 미친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⑤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광고주로서 큰 관심을 가지게 마련인 광고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은 영향을 미친다(51%)와 보통이다(33%)가 전체의 84%의 절대적인 수치를 보였다. 매우 영향을 끼친다고 응답한 3%를 포함할 경우에는 87%에 달하는 압도적인 비율이 광고의 기능과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11%)거나 거의 영향이 없다(2%)는 응답은 소수에 그쳤는데 이는 현재 각종 매체를 통해 광고를 집행하는 광고주들이 광고의 효과를 일정 부분 보고 있거나 광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적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10. 잡지나 신문에 게재되는 타사제품의 광고들을 얼마나 보십니까?

- ① 매우 꼼꼼하게 본다 ② 꼼꼼히 본다 ③ 보통이다(예, 큰 제목과 업체명 등 기본정보만 본다)
- ④ 별로 보지 않는다(예, 대충 넘기기만 한다) ⑤ 아예 보지 않는다.

타사 제품의 광고들을 어느 정도 보는가에 대한 응답은 보통수준으로 보거나(48%), 꼼꼼하게 보는 것으로(43%) 드러났다. 전체 응답의 91%를 차지했다. 매우 꼼꼼하게 본다(5%)를 합칠 경우에는 무려 96%에 달해 직업별 수준에 달하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의 집중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별로 보지 않는다는 응답은 4%에 불과했다.

11. 인쇄관련 매출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많은 편이다 ② 많은 편이다 ③ 적정하다 ④ 적은 편이다 ⑤ 매우 적은편이다

인쇄관련 매출수가 매우 많다는 응답은 7%에 그쳤으나 많은 편이라는 응답은 23%에 달했다. 이에 비해 적은 편이라는 응답은 23%였으나 매우 적다는 응답은 아예 없었고 무응답은 3%였다.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44%였다.

12. 현재 지불하고 있는 광고금액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많은 편이다 ② 많은 편이다 ③ 적정하다 ④ 적은 편이다 ⑤ 매우 적은편이다

현재 지불하고 있는 광고비가 적정하다는 응답이 무려 68%에 달했다. 많다고 느끼는 경우는 매우 많다(2%), 많다(13%)로 15%에 달했으며 적다고 느끼는 경우는 12%였다. 매우 적다는 응답은 없었으며 무응답은 5%였다.

13. 광고와 관련해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기대에 비해 풍성한 얘깃거리는 없었다. 인쇄상태가 불량했다든가 제품의 이미지가 잘못 게재되어 낭패를 보았다든가 하는 경우가 다소 있었다.

개인 질문

1. 하루 수면시간은 얼마입니까?

- ① 5시간 미만 ② 5시간 ~ 6시간 ③ 6시간 ~ 7시간 ④ 7시간 ~ 8시간
- ⑤ 8시간 ~ 9시간 ⑥ 9시간 ~ 10시간 ⑦ 10시간 이상

5시간 미만으로 잔다는 응답은 6%였으며 5~6시간 수면이 27%, 7~8시간 수면은 5%였다.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것은 6~7시간으로 62%를 차지했다. 이는 전형적인 도시형 생활자의 패턴과 거의 같은 것이다. 8시간을 넘긴 수면 시간을 응답한 사람은 없었다.

2. 현재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 ① 매우 행복하다 ② 대체로 행복하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불행하다 ⑤ 매우 불행하다

광고업무를 담당한 인쇄인들의 평균적인 행복감은 약간 행복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매우 행복하다(3%), 대체로 행복하다(55%), 보통이다(42%)였으며 대체로 불행하다와 매우 불행하다는 없었다. 이 같은 결과는 다소 의외였으나 대면 설문조사의 성격에 다소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정치 성향은 어떻습니까?

- ① 매우 보수 ② 다소 보수 ③ 중도 ④ 다소 진보 ⑤ 매우 진보

광고 및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실무자들의 정치성향은 예상과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중도라는 응답이 58%로 최다였으며 다소 진보가 24%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다소 보수 16%, 매우 진보 2%였다 매우 보수라는 응답은 없었다. 이는 최신 트렌드를 이해하고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광고 및 홍보업무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4. 흡연을 하십니까?

- ① 아니요 ② 네

예상보다 흡연율이 낮은 수준이었다. 35%에 불과했는데 이는 여성 응답자의 비율이 38%에 달했다는 점과 사회적 분위기가 금연을 강조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따라 흡연 사실을 알리기 꺼리거나 앞으로 금연 예정임을 강조하는 응답도 있었다.

4-1. 흡연을 한다면 하루 얼마나 피우시나요?

- ① 1/2갑 미만 ② 1/2~1갑 ③ 1~2갑 ④ 2갑 이상

35명의 흡연자들 가운데 1/2~1갑이라는 응답이 21명으로 가장 많아 절반을 넘어섰다. 하루 1/2갑 이하로 피운다는 응답이 8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1~2갑은 5명, 2갑 이상의 애연가는 1명이었다.

5. 가장 좋아하는 술은 무엇입니까?

- ① 소주 ② 맥주 ③ 와인 ④ 막걸리 ⑤ 전통주(산사춘, 백세주 등) ⑥ 기타(폭탄주, 소맥 등)

역시 소주는 국민의 술이었다. 30%에 달하는 최고의 응답률을 보였다. 여성 응답자들의 선호도가 적극 반영된 맥주가 28%로 2위를 차지했으며 최근 열풍을 탄 와인도 18%에 달하는 높은 선호도를 보이며 3위에 올랐다. 전통주는 8%, 막걸리는 4%였으며 폭탄주 등의 혼합주는 6%에 달했다.

5-1. 술을 드신다면 1주일에 몇 번이나 드시나요?

-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⑥ 매일

예전처럼 월요일은 원래 마시고, 화요일은 화끈하게 마신다는 주당들이 대폭적으로 줄었음이 드러났다. 1주일에 1회 이하로 마신다는 응답이 48명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2회 마신다는 응답은 19명이었으며 3회 마신다는 8명, 거의 매일 마시는 4회 이상은 6명에 그쳤다. 마시지 않는다는 비음주자도 19명에 달했고 주 1회라는 응답자 가운데서도 1달에 1회 라는 응답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5-2. 평균 주량은 얼마나 됩니까?(소주 기준)

- ① 1/2병 미만 ② 1/2~1병 ③ 1~2병 ④ 2병 이상

주량 부문에 있어서도 여성들이 영향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1/2병 이하로 마신다는 응답이 35%로 가장 많았으며 1/2~1병이 30%로 그 뒤를 이었다. 평균적인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는 1~2병은 22%였으며 2병 이상 마신다는 애주가는 8명에 그쳤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무응답자와 비음주자는 5%였다.

6. 1주일동안 전 가족들과 식사를 함께 하는 횟수는 얼마입니까?

- ① 매일 ② 4회 이상 ③ 3회 ④ 2회 ⑤ 1회 ⑥ 거의 없다

매일 전가족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응답이 14%에 불과했다. 4회 이상도 16%에 그쳤으며 주말을 제외한다면 평일에는 1회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3회도 19%였다. 주말에만 함께 식사할 수 있음을 뜻하는 주2회가 28%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1회가 9%, 거의 없다는 7%였다. 이는 지방에서 서울로 취업한 20대들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7. 추석연휴는 어떻게 보내실 예정입니까?

- ① 여행을 간다 ② 집에서 휴식할 예정이다 ③ 친척 친지들을 방문할 예정이다 ④ 기타

추석연휴에 여행을 간다는 응답이 7%, 집에서 휴식을 취할 것이라는 응답이 35%였다. 친척, 친지들을 만나는 응답은 51%로 최다를 차지했다. 기타 소수 의견으로는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운동을 하겠다는 응답도 있었다.

8. 추석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송편 ② 보름달 ③ 제사 ④ 친지 및 친척들과의 교류 ⑤ 기타

추석에 떠오른 이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친지 및 친척과의 교류라고 응답한 비율이 53%의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제사라고 답한 비율은 21%였으며 송편이라는 응답은 13%로 예상보다 적었다. 보름달은 9%에 불과해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응답자들의 연령대가 30, 40대가 많아 낭만보다는 현실에 집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9. 여가시간에 주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TV시청 ② 낮잠 ③ 영화 및 연극관람 ④ 인터넷 ⑤ 운동 ⑥ 여행 ⑦ 독서

여가시간에 적절하게 즐길 공간과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TV시청이 33%의 응답률로 가장 높은 여가활동으로 뽑혔으며 영화 및 연극관람이 27%로 뒤를 이었다. 인터넷을 한다는 응답은 15%였으며 운동은 12%에 그쳤다. 낮잠을 잔다는 응답이 7%, 독서가 3%에 달해 정적인 활동이 58%나 차지해 여가활동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10. 운동을 하고 있다면 일주일에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 ① 1~2회 ② 3~4회 ③ 5회 ④ 매일

실제적으로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주일에 1~2회 한다는 응답이 68%에 달했으나 사실상 1회 이하의 경우도 적지 않게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의 웰빙 열풍과 몸매 가꾸기의 영향으로 아무런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하는데 부담을 가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4회 운동한다는 응답은 20%였으며 주 5회 운동한다는 응답은 8%였다. 매일 한다는 응답은 2%에 불과했다.

11. 주로 하는 운동은 무엇입니까?

- ① 축구 ② 야구 ③ 등산 ④ 골프 ⑤ 수영 ⑥ 기타(예, 볼링) ⑦ 아무것도 안한다

운동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가 28%로 최다 응답을 차지했으나 실제로 자주 하기에 어려운 종목을 드는 경우가 많았다. 등산이 22%였으며 골프 4%, 수영 3%, 축구 3%, 야구 2% 등이었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2%였다.

12. 좋아하는 연예인은 누구입니까?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탤런트가 없었다. 최다 응답은 없음으로 32%였다. 도토리 키 재기에 가까운 혼전 속에서 그나마 김태희 7%, 문근영 5%, 손예진 3%였으며 (여자)아이돌 3%, 소녀시대, 제시카(소녀시대) 등이 눈길을 끌었다. 안젤리나 졸리 등 해외 연예인을 꼽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여성 응답자들의 선호도가 반영된 남자 연예인은 원빈 2%, 유재석 2%, 강호동 1% 등이었다.

13.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는 누구입니까?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없다는 응답이 27%였으며 맨유에서 활약하고 있는 박지성이 27%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김연아는 설문조사를 진행할 당시, 코치와의 결별설 등으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듯 박지성과는 차이가 꽤 나는 15%로 2위를 차지했다. 3위 이하로는 순위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지지가 약했다. 박찬호(4%), 이종범(2%), 이청용(1%) 등이 눈길을 끌었으며 슈마허(F1), 메시(1%), 비야(1%), 이대호(1%), 유현진(1%) 등도 관심을 끌었다. Ⓞ